

제 목	국 문	VDT 취급근로자의 자각증상과 정신사회적 안녕상태의 상관성		
	영 문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ymptoms and Psychosocial Well-being Status of VDT Operator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고상백, 장세진, 차봉석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 및 직업의학연구소		
	영 문	Sang Baek Ko, Sei Jin Chang, and Bong Suk Cha Departments of Preventive Medicine and Institute of Occupational Medicine, <i>Wonju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i>		
분 야	산업보건	발 표 자	고상백 (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 ( ○ ) → 완료 예정 시기 : 95 년 12 월			
<p>1. 연구 목적</p> <p>이 연구의 목적은 VDT (Video Display Terminal) 취급 근로자의 신체적 자각 증상이 정신사회적 안녕수준(Psychosocial Well-being Status)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있다.</p> <p>2. 연구대상 및 방법</p> <p>이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W시 및 K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신공사 소속 여자 전화 교환수 89명으로 이들에게 신체검사 및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5년 8월에 자료를 수집하였다.</p> <p>VDT 자각증상 설문은 岩破康博 와 藤木辛雄 이 개발한 『頸肩腕 障害 의 자각 증상조사표』를 구로의원에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고, 정신사회적 안녕수준 설문은 PWI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장세진, 1993)을 이용하였다. 통계분석 패키지는 SPSS/PC*를 이용하였다.</p> <p>3. 연구결과</p> <p>1)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7세 (표준편차 3.1세) 였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83명 (93 %)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p> <p>2) 연령별, 지역별 VDT자각 증상수준과 정신사회적 안녕 수준간에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3) VDT 자각증상은 어깨, 목, 등, 팔, 손 (손가락), 허리, 하지 등의 7개 부위에 대해 좌측과 우측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자중 어깨 100%, 목 93%, 등 90%, 팔91%, 손 92%, 허리 92%, 하지 90%의 증상을 호소하여 대다수의 대상자에게서 높은 자각 증상 수준을 보였다.

4) 전체 부위별 자각 증상수준을 상위 30 percentile 하위 30 percentile 그리고 중간 집단으로 3분하여 정신 사회적 안녕수준을 비교한 결과 어깨, 목, 팔, 손, 하지 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 $p < 0.05$ ), 등, 허리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7개 부위의 총 자각 증상 점수를 위의 방법대로 3분하여 정신사회적 안녕수준을 비교한 결과 VDT 자각 증상수준이 높을 수록 낮은 정신사회적 안녕수준을 보였다 ( $p < 0.01$ ).

5) 각 부위별 자각 증상수준과 정신사회적 안녕수준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등(back)을 제외하고는 다리, 팔, 목, 어깨, 허리, 손 등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다 ( $p < 0.01$ , 양측검정).

6) 정신 사회적 안녕수준에 미치는 제 변수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결혼상태, 각 부위별 자각증상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팔의 자각 증상만이 회귀식에 투입되었으며 팔에 대한 자각 증상만으로 약 20% 를 설명하였다.

#### 4. 고찰

VDT 취급 근로자들이 느끼는 자각증상은 사람마다 신체부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높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VDT증후군을 직업병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추세를 감안해 보면 VDT증후군이 정신사회적 건강상태 및 신체적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VDT취급 근로자들과 다른 근로자들 (제조업 또는 사무직 근로자)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VDT 사용으로 인한 건강의 위해성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환자-대조군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